

국정감사 優秀 국회의원에 선정

고조흥 의원, 2007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의해

11월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7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의원(연천/포천, 국방위원회)이 국감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의 시민단체로 결성되어 1,000여 명의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여 우수위원을 선정하는 공식력 있는 기관이다.

고의원은 파행국감으로 평가되었던 올해 국정감사중에서도 민생국감, 생활국감, 정책국감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어 우수의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의원은 군의 가장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병들의 복지개선을 목표로 지난 봄부터 총 5개 도시, 8개 군부대, 약 4천300km를 발로 뛰어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비 인상문제와 보급품 개선 문제, 병영생활에서의 병사간 갈등해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대안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軍 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한 우리 농가의 시름



11월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7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의원(연천/포천, 국방위원회)이 국감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을 덜고자 병사들의 증식품목에 우리 쌀로 만든 떡을 공급하고 안전한 국내 육우(젓소고기)농가의 육우 납품률 증가를 촉구하는 등 군장병의 건강 증진과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국감을

펼쳤다. 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에도 귀를 기울였다. 민통선 지역에서의 복잡한 출입절차상의 문제, 산발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등을 꼬집으며 군과 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12월은 결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자외선 타오던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고 결산을 해야 한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수고한 댓가를 결산해야 한다. 무엇을 싣고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수고들에 따라 희비가 달라진다. 순간순간 성실과 근면의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는 기쁘고 행복과 보람일 것이다. 반

면 불성실 나태의 삶이었다면 후회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 겨울은 춥고 고독스러운 계절이다.

인생의 겨울도 있다. 노년(老年)은 인생의 겨울이다. 활발히 활동하고 일할 때(청춘의 때)가 있는가 하면 기력이 쇠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는 때는 병명 인생의 겨울이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자. 계절의 겨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해를 잘 마무리하자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일러 준다. "너는 청년의 때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김창성 내촌교회 목사

문의) 031-532-2489

2007년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담회

17개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참석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2007년 11월 23일 오전11시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베어스타운을 비롯하여 17개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토대

로 화재취약 요인을 도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대하여 토론했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의 200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내용 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와 대형화재 및 재난발생시 대형화재 취약대상과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방안에 대해

여 논의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실시로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 및 조성되어 모두가 대형화재 없이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는 11월23일 오전11시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뮤지컬 아가페지 삼형제 공연

이주민 자녀와 함께하는 뮤지컬 아가페지 삼형제 공연이 11월11일 오후2시 가산이주민 노동자센터 공방방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극단 Art-3 Theatre가 주관하며 극무총리 북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뮤지컬 아가페지 삼형제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교육체제를 통해 더 넓게는 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함이다.

공연내용은 아이들이 평소 잘 알고 있는 아가페지 삼형제 동화를 간단하게 내용을 추려 음악과 함께하는 내용의 뮤지컬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제화장실 엑스포 포천시 전시관

포천시와 행자부 주최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행정자치부와 포천시가 주최하고 한국화장실협회 주관하는 2007 국제화장실·욕실 엑스포장에 포천시 특별전시관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

홀에 설치·운영됐다. 포천시 특별전시관의 외형은 세상에 하나뿐인 초대형 변기로 만들어진 '화장실 하우스' 모양으로 하고 내부 구성은 기존의 화장실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미래화장실, 문화공간 예술 화장실, 동화속의 상상 화장실 등의 신선한 볼거리와 직접 참여하는 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포천시 일동도서관에 설치한 동화속의 과거집 행렬과 그래픽 화장실을 실제 과거로 만들어 상상의 공간을 직접 현실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화장실 내외벽을 과거로 장식되며 화장실 내부 설비에서는 사랑과 포천시 특산품인 한과, 버섯 스테이크가 쏟아지는 등 상상속의 과거집이 화장실이라는 특별한 공간과의 만남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 주는 창의의 현장 학습의 장으로 제공될 것이다.

아울러 포천시의 선진화향 화장실을 국제행사장에서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각종 화장실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포천시의 화장실 문화와 현 주소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행정자치부와 포천시가 주최하고 한국화장실협회 주관하는 2007 국제화장실·욕실 엑스포장에 포천시 특별전시관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설치·운영됐다.

자유기고

훈훈한 사랑이 익어가는 백운계곡

이동면 도평리에 위치한 백운계곡은 요즘 동장군을 맞이하고 겨울축제인 이동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 한창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도로포장공사 다 마무리되고, 시설물 작업 및 먹거리 코너를 위한 시설, 겨울 송어낚시터, 가족을 위한 토끼몰이장, 소대형 일을 기동연출, 특히 작년보다 2배 가까이 길어진 눈썰매장을 설치함으로써 동장군 축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겨울 남민과 추억을 줄 수 있는 흥분한 장을 펼치기 위해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백운계곡 자치 모임단체인 백운계곡 사랑모임 일명(백사모)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총 27가구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는 백사모의 회장인

은순옥, 총무 박영수, 고문 김세심, 정옥훈 등이 이 모임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각종 봉사활동과 동장군 축제에 성공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성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특히 올 겨울 이 지역에 감장을 못하신 어려운 노인과 불우한 가정을 위해 감장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포천관내 헤프는집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있다. 연말에 자선바자회를 열어 이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계획중이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계속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도평리영농어촌 마을 종합개발과의 연대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의 관심속에서 이 지역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마을! 깨끗하고 보기 좋은 마을!

열심히 서로 도와 도시민과 현주민이 합심하여 융합을 잘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추진위원회와 자치회가 발족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4회째 진행되는 축제사업에 더욱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제까지 3회의 과정을 통해 미비하고 보완할 점, 개선해야 될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잘된 점을 더욱 발전 시켜 명성산역 새꽃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인 발전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 대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 주민들의 배를 짚는 노력으로 인하여 정상제도에 진입할 것으로 믿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



김형식 조사업위원회 부주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④

무보상 원칙(북한 주민 소유 인정)



서희석 대안정책연구소 대표이사

무보상 원칙은 통일 조국의 경제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통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원칙을 말하며 원소유권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이 오히려 통일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본권 및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통일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북한의 재산권 소유제도는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써 북한 주민 모두의 공동 소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협동단체 소유는 현실상 협동농장 구성원이 이용권만 가지나 이혼상 협동단체 구성원 모두의 공동 소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한 압제 및 한국 전쟁으로 폐폐된 북한 사회를 오늘 날까지 유지시켜 온 것은 북한 주민의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해 주어야 하기에 북한 지역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북한 주민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무보상 원칙은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원칙은 북한의 현실상황을 북한 주민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재산을 북한 주민에게 돌려주는 한편, 월남자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처러 원칙은 물론 소유권을 비롯하여 북한 지역의 모든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으로서 통일 직후 전체 토지의 권리 회복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소요 등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북한 지역 소재 토지에 대해 재국유화 조치를 쉽게 단행할 수 있어 토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공공 임대 사유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보상 재원 확보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 통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통일 초기에 북한 지역의 종합적 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 이용 개발 정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무보상 원칙은 북한 지역의 토지 원소유권을 증명할 토지 원부가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 정권이 토지 개발과 원형 변경 등을 통해 토지 소유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기에 토지 소유 관계를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해야 하는 반환이나 보상 원칙에 의한 소유권 처

리보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정리되는 동안의 투자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무보상 원칙에 따른 국유화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통일 후 남북 주민 간의 소유 재산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원만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토지 사유화와 토지 공개시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미리 마련해야 하며 셋째,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수용 증가로 인한 토지 투기의 발생을 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넷째, 북한 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북한 전역에 걸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토지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토지 관리를 위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물론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 보장에 배치되는 위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과거 북한 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몰수된 재산 가치에 대한 원상

회복을 도모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근본 가치로 하여 새로이 출발하여야만 하는 통일 한국이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는 불법 상태를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결과가 되어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통일 한국이 협동농장 소유 토지에 대해 공동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 이전 북한의 토지 이용권을 자본주의 체제 하의 소유권으로 곧바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소유 체제 하에서 인정되지 않는 혁명적 발상으로서 자본주의의 논리와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원칙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법적 토지 몰수 조치에 항거하여 월남한 원소유자와 그 상속인들의 거센 도전과 소송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일 한국이 해결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통일 초기 원소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결국 반사회적 집단 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의 이용권을 그대로 소유권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남아 있어 도시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 집단 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의 이용권을 그대로 소유권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남아 있어 도시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 집단 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의 이용권을 그대로 소유권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남아 있어 도시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 집단 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신인 문학상 수상

올해는 상복이 터졌다 보다. 지난 6월에 포천환경사랑글짓기에서 은상을 받아 이웃들과 많은 축배를 나누는다고 한 달 생 활의 절반을 써버렸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경기 신인 문학상 수필 부문에 당선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상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더니 막상 상을 받고 보니 덜컥 겁이 난다. 상이란 것은 받으면 기본이 우물해지는 마약성분이 있는가보다.

11월 26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 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거행된 시상식은 그윽한 선율의 섹스폰 연주와 3인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서 심사위원 선생님의 심사기준과 평을 듣게 되었는데 경기도 문인협회 산하 31개 지부에서 당선된 120여명의 작품 중에서 5명이 신인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굴이 화끈해 지면서 남의 웃을 입은 듯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어쩌랴! 내가 무심코 던진 동맹이를 신신하게 바라봐 주신 선생님들의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라는 숙제라 생각하고 노력해보리라는 다짐을 해 본다. 저물어 가는 정해년은 내게 황금 돼지의 해가 분명했다. 편안하게 나를 이끌어주신 포천신문사의 배려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보내기 싫은 2007년을 정리해야겠다.



용경자 주부협회지부대표